

17세기 편찬 입실 읍지, 전통한지로 되살리다

전주문화재단·입실군, 1675년 최초 편찬 입실현 사찬읍지 '운수지 읍묘본' 전통한지로 복본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과 입실군이 조선시대 입실현의 사찬읍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운수지 읍묘본'을 전통한지로 복본(復本)하는 데 성공했다.



운수지 읍묘본

이에 따르면 입실군은 읍묘본의 문화유산 지정 추진 과정에서 일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복본 제작을 결정하고, 이에 전주문화재단이 협력에 나섰다. 복본 작업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이자 입실에 거주 중인 김일수 한지장이 참여해 전통한지 제작을 맡았다.

재단은 원본을 비파괴 방식으로 정밀 분석하고 이미지 스캔을 통해 디지털화한 뒤, 색상 보정과 판형 이미지 제작을 거쳐 복본을 완성했다. 특히 본문 형태를 정비할 때는 고서의 판심제(版心題)를 기준으로 편집했으며, 황변 현상 등 원본 손상 요소를 제거해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복원했다.

복본에는 김일수 한지장이 별도로 제작한 전

통한지가 사용됐으며, 인쇄 기법 역시 전통 방식에 기반한 특화된 공법이 적용됐다. 표지와 장정은 현존 일본의 상태를 반영해 현상 복원 방식으로 선장(線裝)했다.

복본은 재단을 통해 입실군에 전달됐으며, 입실군은 향후 문화유산 지정과 지역 역사 자산 활용 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복본 작업은 단순한 문헌 재현을 넘어, 문화재 보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시도"라며 "입실의 '운수지'를 시작으로 전주의 '완산지', 남원의 '용성지', 순천의 '승평지' 등 전라도 지역의 주요 사찬읍지도 순차적으로 복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본된 '운수지 읍묘본'은 오는 하반기 입실군에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운수지 읍묘본'은 1675년 최초 편찬된 입실현 사찬읍지로, 당시 입실의 별칭이었던 '운수(雲水)'의 유래와 변천, 행정체계 등을 상세히 기록한 고문헌을 말한다.

전라도 사찬 지리서 가운데 1618년 순천 '승평지'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자료며, 1699년 남원 '용성지' 등과 더불어 17세기 전라도 지역 사찬읍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평가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미디어아트전시관 '피오리움' 호응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 주제 미디어 전시 등 새로운 문화 쉼터 제공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4월 30일 제95회 춘향제와 함께 개관한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Fiorium)'이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하며 방문객들에게 강한 첫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전했다.



피오리움은 전통의 정취가 거리 곳곳을 채운 도시의 시·공간 위에 빛과 예술,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관람객의 발걸음을 빠르게 사로잡으며,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한 존재감과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곳은 콘도건축이 중단되어 오랜 기간 방치됐던 폐산업시설을 리뉴얼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남원 '달빛정원'에 위치,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을 주제로 한 미디어 전시와 참여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미디어아트 전시는 '남원다운' 콘텐츠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감각의 경험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남원에서 꼭 들려야 할 장소'로 빠르게 입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오리움은 남원의 문화 경험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공간으로서 도시의 정체성 위에 남원이 앞으로 문화로 말하고 기억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동시대 한국 영화 현재 살펴보는 값진 경험 선사

무주산골영화제,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 섹션 상영작 8편·심사위원 공개

푸른 자연, 보랏빛 낭만으로 가득한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 '창'섹션의 상영작 8편과 심사위원을 공개했다.



무주산골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섹션인 '창' 섹션은 우리가 사는 다채로운 세상을 개성적이고 차별화된 시선으로 포착하여 한국 영화의 지평을 넓힌 동시대 한국장편영화를 선정하고 상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열린 경쟁 속 올해 '창'섹션 상영작으로 선정된 8편(극영화 6편, 다큐멘터리 1편, 애니메이션 1편)은 작품성을 전제로 새로운 감각과 통찰이 돋보이는 영화, 자신만의 언어 또는 미학을 고민하며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도전과 시도가 두드러지는 영화들이다.

영역으로는 탈북성소수자 이야기를 담은 박준호 감독의 <3670>, 한국사회의 부조리를 풀어낸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 관계의 진실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조희영 감독의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 배우 한예리와 김

실진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강미자 감독의 <봄밤>, 캐릭터들의 에너지가 감랄한 서사를 이끌어내는 김효은 감독의 <새벽의 Tango>, 차동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월드 프리미어로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되는 <해바라기>가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다큐멘터리로는 계임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는 정재훈 감독의 <에스퍼의 빛>, 애니메이션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허범욱 감독의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가 각각 선정되었다.

무주산골영화제는 "다채로운 형식, 영화적 개성과 잠재력,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시선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창'섹션 상영작 8편을 통해 관객들은 동시대 한국 영화의 현재를 살펴보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익산시, '길 위의 인문학' 공모 12년 연속 선정 쾌거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12년 연속 선정되며 인문학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영등·부송·유천·금마도서관이 사업에 선정돼, 각 도서관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 등을 포함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도서관들은 각기 다른 주제와 방식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영등도서관은 과학·항기를 예술과 융합시킨 '에스(S)의 인문학: 과학(Science) 그리고 항기(Scam)'를 선보이며, 부송도서관은 중앙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원예, 명상 등을 통해 생태적 삶을 조명하는 '나의 자연을 담은 인문학'을 운영한다.

유천도서관은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역사·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선을 넘는 고전 산책'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촉진한다. 금마도서관은 '판소리 다섯바탕, 웃고 우는 이야기'를 통해 전통예술의 정수를 소개하고, '역사 속 도서관, 도서관 속 역사'를 통해 도서관과 역사의 관계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운영 일정에 따라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bk.sns.go.kr)에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역사와 문화를 잇다' 고창 무장읍성 축제 10일 개최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고창 무장읍성에서 오는 10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장읍성 축제가 열린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역사 골든벨(최후 1인에게 상금 50만원 지급) △함께 그리는 무장읍성 그림대회(1등 50만원, 2등 30만원, 3등 20만원) △무료 체험 프로그램(임목재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호패 공방 등) △성 밝기 체험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이 운영된다.

무장읍성(사적 346호)은 호남방어 요충지로 애적 침입을 막고자 되어 민이 호국정신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축조한 읍성이다. 동학 농민혁명군이 무장기포지에서 포교문을 선포하고 봉기한 후 최초로 무혈입성한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축제 사전접수 후 현장을 방문하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방문 이벤트, 축제 종료 후 꽃밭분 증정 이벤트, 무장읍성을 한 바퀴 돌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성 밝기 이벤트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돼 있다.

올해 축제는 무장읍성의 역사적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 다양한 신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공예품 특별할인전 'LUCKY-락희(樂囍) 페스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판매 중인 모든 공예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16~25일 열흘 간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예품 60여종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특별 할인하는 'LUCKY-락희(樂囍) 페스타'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내 유수의 공예작가들과 공예업체들이 제작한 고품격 공예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판매 상품의 70% 이상이 도내 공예작가 작품으로, 지역 공예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단돈 1만 원으로 마음에 드는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코너도 함께 운영된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통공예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전주의 품격 있는 공예도 관람하고 동시에 특별한 할인혜택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LUCKY-락희(樂囍) 페스타'는 전국적인 공예축제인 '2025 공예주간'과 연계해 할인 행사 외에도 전시, 체험, 공방투어,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예품전시관을 중심으로 한옥마을 곳곳에서 펼쳐진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경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